

꼭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인물인 것도 같다. 정말 여기에 존재하는
인물이긴 한 건지, 이 세상에 실존하는 인물이긴 한
건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 친구는 피자를 사들고 왔는데,
익숙한 피자향이었지만 적응할 수 없는 독특한 냄새가 났다.
쿵쿵해서 조금 불편하기까지 한 피자 냄새가 그 친구보다 존재감이
강했다. 피자를 앞에두고 시답잖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영어로
이어지는 대화에 나는 그 친구의 목소리가 꼭 영어 듣기평가처럼
느껴졌으나 그렇게 느끼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다. 몰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모범답안을 찾아 대답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가
내뱉는 문장들은 종종 낯설게 느껴졌는데, 십여 년 전에 들어봤을 법한
교과서 속어 같은 느낌이 났기 때문이다. 그럼 나도 교과서에서 다음
친구가 대답할 알맞은 말 따위의 재미없는 대답을 하게 됐다. 내
친구 응우옌 씨는 꼭 토마스가거나 제임스가거나
찰스처럼 느껴졌다. 머릿속에 박혀있는
텍스트로서의 프로필 이상으로는 그를
베트남 사람으로 실감할

1

향하고 있었다. 유리잔을 기어오르고, 주스를 향한다. 주스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개미들, 주스 안에서 버둥거리는 개미들이
있었다. 개미가 꼬인 유리잔과 오렌지 주스를 한동안 바라봤다. 그
자리에 한동안 서있었다. 오렌지 주스에 꼬인 개미 떼만큼 그의
존재를 실감하게 할만한 것이 있었다. 그건 방금 전까지 여기에
앉아있던 누군가 손에 쥐고, 입술을 대고 마시던 오렌지 주스였다.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는 개미가 등성등성 빠져 죽어 등등
뜨기 시작한 주스. 나는 이 주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유리잔을 만져보았다. 유리잔을 치우고 오렌지 주스를 싱크에
쏟아버리면 나는 정말로 방 안에서 혼자자 될 것만 같았다.
오렌지 주스에 꼬여 버둥거리는 개미 떼. 몇 개월을
그리워하던 응우옌 씨를 나는 그제서야
만났다.

일이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무미건조한 플라스틱 같은 영어만 오고
갔으니 어쩌면 나 역시 그에게는 브리트니나
휘트니일지도 모르겠다. Nha Trang이 나트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슬펐던 나는 응우옌 씨를 있는 힘껏 응우옌 씨로
실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토마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피자 두 조각과 오렌지 주스를 남기고 내 방을 떠났다. 그를
배웅하자마자 돌아서서 침대에 나자빠졌는데, 손님이 돌아간 뒤의
아쉬움 같은 감정은 없었다. 아쉬움보단 업무 하나를 해치운 듯한
안도감에 드러누웠다. 피자 두 조각과 오렌지 주스 페트병은 냉장고
안에서 차게 식어가고 있었고 그가 마시다 남기고 간 오렌지 주스
잔 하나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삼십 분쯤
지났을까. 침대에서 일어나 테이블로 걸어가 테이블을
바라봤다. 여기에 사람이 있었나 싶었다. 두고 간
오렌지 주스를 보았다. 그 오렌지 주스는
누군가 두고 간 것이었다.

2

3
개미
떼가 꼬였다. 유리잔에 담긴
주스에는 그 사이 개미떼가 꼬여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마리의 개미 행렬이 유리잔을

<부패하는 사과잼 *Decaying Apple Jam*>, 2026

2026.8.7(금) - 9(일)/ 매일 오후 4시, 오후 7시
탈영역우정국, 서울 마포구 독막로20길 42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 프로젝트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협력 탈영역우정국

주최·주관/ 작·연출 **Created and Directed by**
김인선 Insun Kim

조연출 **Assistant Director**
김인혜 Inhye Kim

퍼포머 **Performers**
김인혜 Inhye Kim
이지은 Jee Eun Lee
임채은 Chae Eun Lim

서문 **Preface**
안수연 Sooyeon An

자문 **Advisor**
홍성민 Sungmin Hong

포스터 디자인 **Poster Design**
임희윤 Heeyun Lim

제작/설치 도움 **Production / Installation Assistance**
조에 JoE

Special thanks
이희경 작가님 HeeKyung Lee
임희주 작가님 Heeju Im
Nguyễn Quảng Khánh Hòa
Dong An Polytechnic College
K-MOVE 베트남 국제무역 실무전문가 과정 연수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탈영역우정국
Post Territory Ujeong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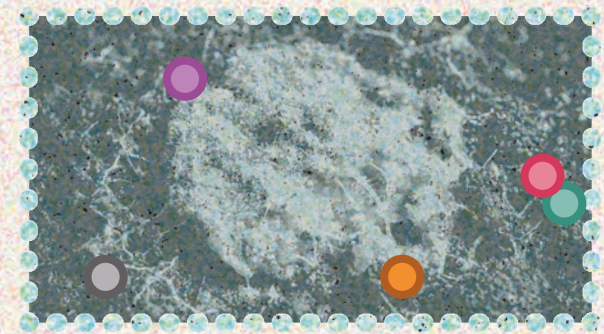
Performance
Aug 7fri · 8sat · 9sun [4:00 & 7:00 PM]
퍼포먼스
8월 7금 · 8토 · 9일 [오후 4시 & 7시]

Decaying Apple Jam

부패하는 사과잼

2026 8 7·8·9

Kim Insun 김인선



그러나 여전히 기대했던 맛이 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시큼한 맛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여전히 맹송맹송하고 신선하기만 한 오렌지 주스는 내가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갓 딴 오렌지를 잔뜩 담아 유리나 페트에 담겨있는 색노랑거나 주황색인, 시고 달며 오렌지향이 가득할

〈부패하는 사과잼〉

입을 벌려 따라 해보자.

응우옌

이원

음우옌

Ng u yen

응, 우, 엔. 혀끝을 앞니 뒤에 붙였다가 떼면서, 입꼬리를 옆으로 늘리고 다시 힘을 빼며 소리를 낸다.

발음 할 때마다 다른 소리가 난다.

Nguyễn, 김인선이 2018년 베트남 나트랑에서 마주친 한 사람의 이름이자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성씨 중 하나로, 이름을 몇 년을 고쳐 발음해봐도 처음 들은 소리를 그대로 흉내낼 수 없었다.

다시 반복할 때마다 처음 소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이 발음처럼, 〈부패하는 사과잼〉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의 형태에서 벗어나며 부패하는 것들에 대한 작업이다. 작가에게 부패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상태다. 이름도, 기억도, 관계도 완결된 실체가 아니며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며 변형되고 무너지는 중인 것들이다. 같은 도시가 나트랑으로도, 또는 냐짱으로도 표기되듯, 모든 것은 정해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한다.

작가는 2019년 집필한 에세이 「씩어가는 것들과 그 이름에 대해」를 시작으로, 같은 해 사운드 퍼포먼스 〈부패하는 응우옌〉을 선보였고, 이후 베트남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재 에세이와 차학경 『딕테』를 번역해보는 실험을 거치며 발음과 번역이라는 소재를 다듬어왔다. 이번 작업은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글쓰기를 낭독과 사운드, 신체 행위로 옮겨오는 확장이다.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함으로써 끝내 완결되지 않는 관계와 기억을 오래 들여다본다.

퍼포먼스는 사과, 부패, 기념품, 오렌지 주스, 응우엔 읽기라는 다섯 장을 지나며, 각 장면은 관계가 소유되고 소비되고 다시 미끄러지는 과정을 하나씩 쥐어보고, 다시 내려 놓는다. 무대에는 다양한 소리가 함께 놓인다. 사과에 금속판을 접촉시켜 부패가 진행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증폭하는 장치는 시간의 흐름을 청각적으로 변이시킨다. 사과와 기념품에 대해 낭독하는 목소리 또한 알고 있는 형상과 실재, 기억의 불일치를 불러낸다. 반면 메신저 속 '응우엔'은 둥근 프로필 사진 안에 멈춰 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얼굴은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지다가, 어느 순간 이 작고 둥근 기념품 같은 사진 한 장만이 남게 된다. 그 안에서 오가는 문장과 기억 속 대화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정확하고, 고르며 매끄럽다. 그러나 이 완벽한 음성마저 그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다.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결코 0에 닿지는 않는 $y=1/x$ 그래프의 곡선은 다가갈수록 좁혀지는 듯 보이지만, 끝내 만나지는 않는 감각과 기억, 관계의 거리를 은유한다.

깎이고 남은 사과는 설탕과 함께 냄비에서 졸여져 결국 잼이 된다. 사과가 잼이 되었다고 해서 부패가 멈춘 건 아니다. 사과는 계속해서 썩어간다. 다만 그 부패는 손에 짤 수 있는 다른 무언가로서, 아름다움과 대조되는 완벽한 청결함과 점점 멀어져 갈 뿐이다. 조명이 잔광만 남기고 사과잼 냄새가 공간에 잔잔히 퍼지는 마지막 순간, 무대에는 잼이 담긴 냄비와 발음되다 만 이름의 잔향만이 남는다.